

서감독 초강수



“이대로라면 이종범도 선발 제외”

“누구도 실력없으면 선발라인업 제외!” 서정환 KIA 감독이 2007년 한국시리즈 진출을 위한 과격적인 팀 운영방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KIA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선수들이라도 주전경쟁에서 밀리면 과감히 젊은 선수들을 기용해 무한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

지난 5일부터 광주구장에서 동계훈련을 지휘중인 서 감독은 “현 상태라면 이종범, 심재학, 김종국 등 모든 고참들이 개막전에 서 제외될 수도 있다”며 “무한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서 감독은 “올 시즌엔 내부 경쟁에서 살아 남지 못하면 무조건 선발 라인업에서 배제하겠다”면서 “이름있는 고참급 선수들도 뒤처지면 벤치 신세를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서 감독의 ‘고참급 배제’에 대한 의중은

“이름값 아닌 철저한 실력위주 기용”

김종국·심재학 등 고참선수에 경고

2006시즌 마감 직후부터 감지돼 왔다.

서 감독은 남해전지훈련과 일본 미야자키 전지훈련 등의 성과를 얘기할 때마다 젊은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대해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2007년엔 열외없이 철저한 팀내 경쟁을 통해 선발 라인업을 짜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서 감독은 2007시즌 예상 포지션에 대해서 ‘스프링 캠프 이후 최종 결정하겠다’는 전제 아래 “외야는 이용규, 김원진, 서튼, 내야는 (장성호), 손지환, 김주형 등을 주목하고 있다”며 젊은 선수들의 기용 의사를 거듭 밝

혀왔다.

서 감독의 이같은 강경 발언은 지난 시즌 약속이나 한 듯 부진한 모습을 보여준 고참 선수들에 대한 ‘선전포고’의 성격이 짙다.

지난 시즌내내 이종범은 부진, 심재학은 부상으로 제 몫을 못했고, 김종국은 벤치를 지키는 일이 다반사였다.

올 시즌도 이들 고참 3인방의 입지는 ‘미지수’다.

외야수 이종범과 심재학은 현 체제에선 마땅히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 보인다. 3자리에 불과한 외야진엔 이미 불박이로 이

용규와 김원진 외에 서튼 등이 자리잡고 있고, 조경환도 한 자리를 꿰찰 수 있는 경쟁자다.

‘일품수비’로 경쟁력을 갖춘 김종국도 사정은 마찬가지.

그동안 2루수 경쟁자인 손지환에 비해 수비에선 높은 평가를 받아왔지만 올 시즌은 그리 녹록지 않아 보인다.

손지환이 이번 전지훈련 내내 수비력을 끌어올렸고, 서 감독도 손지환의 수비력 향상에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 아울러 LG 출신 2루수 한규식도 즉시 전력감으로 손색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서 감독의 이번 강경 발언으로 이종범과 심재학의 마음은 이래저래 급하게 됐다.

올해를 끝으로 FA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이들은 2007시즌 동안 좋은 성적으로 몸값을 높여야하기 때문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피겨여왕’ 김연아 ‘세계선수권’ 간다

빙상경기연맹, 출전권 부여

김연아(17·군포수리고·사진)의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피겨 선수권대회(3월19~25일·일본 도쿄) 참가가 확정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 박성인)은 8일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2007년 제1차 회장단 회의를 열고 지난 5일 피겨경기심판위원회가 상정한 김연아의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 부여를 연맹의 공식 결정으로 추진했다.

박성인 회장 주재로 김정태(실무), 편해강(소프트랙), 신진조(피겨), 박창섭(스피드스케이팅), 이치상 부회장(빙정) 등 총 6명이 참가한 이날 회의에서 연맹은 ▲김연아의 세계선수권대회 파견 ▲제61회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대회(9~10일·고양) 여자 싱글 1~3위 선수의 4대륙선수권대회 출전 ▲4월30일까지 김연아의 국가대표 자격유지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연맹은 참출 동계아시안게임 출전권을 가지고 있는 김연아가 부상이 회복이 되지 않아 출전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랭크대회에서 4위를 차지한 최지은(세화여고)을 아시안게임 예비 엔트리에 올리기로 했다. /최재호기자 lion@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 오늘 유치계획서 제출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나선 강원도 평창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유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막판 유치경쟁에 나선다.

2014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는 9일 권혁수 평창군수와 김남수 유치위원회 국제처장 등이 스위스 로잔 IOC 본부를 방문해 유치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영어와 프랑스어로 작성된 유치계획서는 세안 및 입국절차, 환경보호·기상, 경기장·선수촌 건설, 장애인올림픽, 의료, 숙박, 안전, 수송 등 17개 주제, 234개 항목으로 세밀하게 구성됐다.

평창과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러시아 소치의 유치계획서 제출이 완료되면 IOC는 2월과 3월에 걸쳐 3개 후보도시에 대한 현지 실사를 벌인 뒤 7월4일 과테말라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최종 개최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초고속 스키점프

독일의 마틴 슈미트가 8일 오스트리아의 비쇼프 쇼펜에서 열린 포월스 스키점프 토너먼트 대회에서 점프 도중 하늘을 날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올해 ‘여름리그’ 열린다

올해 프로야구에서 한여름을 뜨겁게 달굴 가칭 ‘서머리그’가 열린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8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8개 구단 사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상금 2억원이 걸린 ‘서머리그’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서머리그는 초복(7월15일)에서 말복(8월14일) 사이에 벌어지는 총 88경기(팀당 22경기)를 뜻하며 이 기간 승률 1위 팀이 상금 2억원을 받는 이벤트성 리그다.

이 기간 올린 팀 성적은 그대로 정규 시즌 성적에 반영된다.

KBO는 무더위가 기승을 떨치는 기간동안 팬의 관심과 흥미를 끌어올리기 위해 서머리그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식 후원사는 조만간 발표된다.



암 극복 ‘사이클 황제’ 암스트롱 8월 한국서 레이스

암을 이겨내고 ‘투르 드 프랑스’ 7연패를 이뤄낸 사이클 황제 랜스 암스트롱(36·미국·사진)이 오는 8월께 한국을 찾아 인간 승리의 레이스를 펼친다.

경륜 운영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올해 8월 중순 개최할 예정인 ‘2007 투르 드 코리아(전국일주도로사이클대회)’를 일반인과 엘리트 선수가 모두 출전하는 전국 사이클축제로 만든다는 계획 아래 세계 최고의 사이클 스타 출신인 암스트롱을 이 대회에 초청하기로 하고 방한 문제를 협의 중이다. 체육진흥공단은 암스트롱 측과 접촉해 방한에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현재 구체적인 일정과 프로그램은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방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단계는 아니라고 체육진흥공단은 8일 설명했다.

체육진흥공단은 올해 투르 드 코리아에 2천~3천명의 사이클 동호인들이 참가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에는 1970~80년대 일반인이 대거 참여하는 4·19 사이클 대회가 있었지만 이후에는 대규모 동호인 사이클 대회가 없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최경주 막판 선전 공동 8위

비제이 싱 14언더 우승

■ 메르세데스-벤츠 챔피언십 최종

‘흑진주’ 비제이 싱(43·피지)이 2007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개막전에서 제도약의 나래를 활짝 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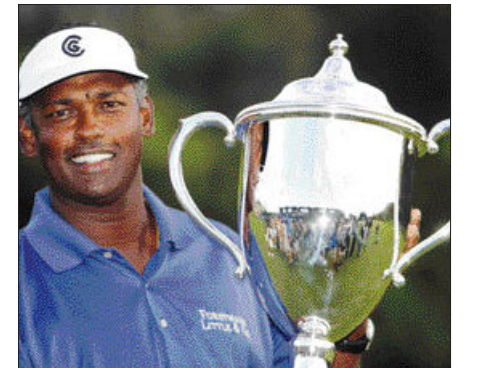
‘탱크’ 최경주(37·나이키골프)는 최종 라운드에서 눈부신 플레이로 공동 8위를 차지, 올해 맹활약을 예고했다.

싱은 8일(한국시간) 하와이 마우이섬 플랜테이션골프장(파73·7천411야드)에서 지난해 투어 대회 우승자 34명만 출전한 가운데 열린 PGA 투어 시즌 첫 대회인 메르세데스-벤츠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3언더파 70타를 때려 4라운드 합계 14언더파 278타로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2위 애덤 스콧(호주·280타)을 2타차로 따돌린 싱은 상금 108만 달러와 벤츠 신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받았다.

올해 명예의 전당 입회식을 가질 예정인 싱은 이날 우승으로 40대 나이에 가장 많은 우승(18승)을 따낸 선수로 PGA 투어 기록집에 이름을 올렸다.

3라운드에서 애덤 스콧(호주)과 트레버 이멜만(남아공) 등 2위 그룹을 3타차로 제치고 단독 선두에 나선 싱은 최종 라운드에서 스콧의 추격을 받았지만 스콧이 자멸한 덕에 편안하게 우승컵을 거머쥘 수 있었다. 1번(파4), 2번홀(파3)에서 연속 버디를 뽑아내 일찌감치 승부에 쐬기를 박는 듯 했



던 싱은 8개월 연속 파행진으로 스코트에 추격의 발미를 폈다.

4번홀까지 2타를 잃어 역전 우승의 꿈을 접는가 했던 스코트가 이후 6개의 버디를 쓸어 담으면서 2타차까지 따라 붙은 것. 하지만 스코트는 꼭 버디가 필요했던 17번홀(파4)에서 3퍼트를 1타를 잃으면서 주저앉았다.

첫날 공동 선두였다가 둘째 날 부진으로 실망감을 안겼던 최경주는 3라운드에 이어 이날도 상승세를 탔다.

버디 5개와 보기 1개를 묶어 4언더파 69타를 친 최경주는 최종 합계 6언더파 286타로 공동 8위까지 순위를 끌어 올렸다.

시즌 첫 대회에서 역사적인 첫 티샷을 날려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최경주는 비록 우승 경쟁에서 일찌감치 탈락했지만 ‘톱10’ 입상으로 산뜻하게 시즌을 열었다.

최경주는 나흘 동안 80%를 웃도는 고감도 아이언샷 정확도를 과시해 퍼팅 컨디션만 살아나면 올해도 우승급 1~2개는 보탬 수 있다는 호평을 받기에 충분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